

몽골제국 유산 찾기와 마르코 폴로를 위한 변명

최 윤 정

(경북대학교 사학과)

1.

유구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그들 자신만의 완전히 고립된 역사란 있을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역사는 세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적 교류의 역사이자 교역의 역사이기도 하고, 정복과 전쟁의 역사이기도 했다. 어떤 경우든, 자신의 언어와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민족과 문명은 항상 불리하다. 정착과 이동, 농경과 목축이라는 생활양식의 차이는 끊임없는 갈등을 낳았고, 결국 정주문명이 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문명과 야만이라는 흑독한 이분법적 잣대와 편견, 정주민들의 붓끝에서 완성된 기록들 속에서 유목민과 그들의 역사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거나 왜곡되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혹 어느 연구자가 그런 편견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 개인이 다루어야 하는 너무도 다양한 언어와 문자로 된 자료들을 섭렵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 김호동 교수의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은 우리 학계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운 값진 저작임이 틀림없다.

본서는 2009년 3월 14일에서 4월 4일까지 4회에 걸쳐 저자가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에서 <실크로드, 몽골제국,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던 내용을 묶어서 출판한 것이다. 소수의 전공자들만 읽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글이 아니라 오랜 학문적 열정으로 무장된 저자의 일관된 관점과 깔끔하고 유려한 문장으로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다양한 독자에게도, 관련 분야를 공부하는 연구자에게도 더 없이 신선하고 유익하다. 무엇보다 문명과 문명 간의 통합적 관점에서 기존의 편협하고 왜곡된 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세계사의 무대에서 소외된 유목민의 제국과 그들이 남긴 유산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줌으로써 학술적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동시에 학문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오늘날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력과 물자, 정보 등 모든 방면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국경 없는 사회로 전개되는 전(全)지구적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지구촌의 평화적 공존과 유대를 위해 문명·국가·민족 간의 유기적인 통합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를 넘어 특별한 현재적 의미를 갖는다. 바로 그 핵심에 몽골인이 건설한 세계제국이 있다. 저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통합한 몽골제국이 “세계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한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독자로서 이 책을 접했던 기쁨과는 별개로, 짧은 지식으로 이 책의 서평을 쓴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적지 않게 고민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 학계에 관련 연구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본서의 의의와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천박하나마 나름의 의문을 제기하고 사족을 다는 것으로 서평자의 임무를 다하고자 한다.

2.

본서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잘 짜여진 내용 구성이 눈에 띄고, 학계의 가장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제1장 <실크로드와 유목제국>에서 저자는 유목민과 농경민 간의 역동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서, 또 문명 간의 연관성과 총체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실크로드’를 제시했다. 기존에 세계사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모델인 전파론과 진화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인류의 역사를 이 두 유형의 합성형인 “교류발전형”(16)으로 파악했다. 이 유형에서 각각의 지역과 문명들을 교차하며 연결하는 수많은 선(線)들은, 마치 카펫의 씨줄에 비유될 수 있는, 성취된 교류와 융합의 결과인 것이다. 이제 실크로드는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선(raod)’이 아닌 ‘면(面)’이자 독자적인 하나의 역동적인 역사세계(‘면들이 오버랩되어 형성된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다(24). 중국사를 북방과 서북 영역의 변화에 따라 ‘대중국’과 ‘소중국’의 반복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은 이들 영역 전체가 중국 왕조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역사 서술상의 오류로 실상 ‘대중국’으로 분류되는 원과 청제국 시기 ‘중국’이라는 세계는 ‘비중국’ 세계 속에 편입된 것이다(44).

그럼 실크로드와 유목민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중국인의 실크로드 진출 목적이 정치·군사적 측면에 있었던데 반해 유목민은 경제적 목적이 주요했고, 이 점에서 유목국가와 중앙아시아 국제 상인들의 이해관계는 일치했다. 유목민의 군사력과 상인의 상업력의 결합이 실크로드를 존속시킨 가장 중요한 ‘힘’이었고(66), 결국 이 양자의 결합이 몽골제국을 탄생시키고, 세계사의 통합에 결정적 전기를 이룩한 것이다.

제2장 <세계를 제패한 몽골제국>에서 저자는 “몽골 세계제국의 출현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몽골제국의 탄생 과정과 그것

이 갖는 의미, 제국의 토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몽골 유목민 사회의 핵심인 ‘울루스(ulus)’는 동일한 부계혈통(yasun)을 소유한 ‘오복(oboq)’이라는 씨족 단위가 모여 형성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저자는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씨족과 부족이 국가에 선행하는 단계에 존재했던 사회적 조직이 아니라 반대로 국가에 의해 규정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스니스(David sneath)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씨족과 부족은 친족조직이 아닌 특정가족(family)이나 종족(lineage)이 정치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단위(‘머리없는 국가’)가 된다(85). 이런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더 부합한다면 기존의 부족연맹체, 부족연합국가라는 표현은 신중한 재고가 요구된다.

요컨대, 12C 몽골리아 초원에는 여러 개의 대형 울루스가 존재했고, 이들은 치열한 대립과 전쟁 중에 있었다. 자신의 일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칭기스칸은 울루스들을 통합하기 위해 정치적 동맹의 형태인 혼인(사돈-quda), 의형제인 안다(anda), 군사 동맹의 성격인 누케르(nöker)와 보골(boghhol) 등 다양한 ‘연맹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였다(99). 곧 1206년 몽골제국은 “혈연과는 무관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연맹 관계 속에서” 탄생하였다(101). 이 신생제국의 근간은 천호제, 친위대(keshig), 자삭(jasaq)이었다. 이중에서도 제국의 토대가 되는 군사·사회조직인 천호(95개)의 88명의 천호장 중 86명이 칭기스칸의 혈연과 무관한 인물들이 임명되었다. 1만 명으로 구성된 ‘케식’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제국의 ‘엘리트집단’이다. ‘자삭’은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위한 법령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가산제적(patrimonial)’ 성격을 갖는 몽골제국은 지배 하에 편입된 유목민을 가산으로 간주해 자체 ‘분봉(分封)’을 통해 ‘복수의 울루스로 변용된다(113).

칭기스칸의 대외원정의 목적은 응징과 약탈에 있었기에 그는 ‘유목 세계의 군주’였다. 그의 후계자들 시대부터 약탈전쟁은 정복전으로 전환되

었고, 그것은 칸(qan, khan)과는 달리 복수형이 없는 ‘카안(qa'an)’이라는 호칭의 채택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나듯 초원지대와 농경지대를 모두 아우르고 지배하는 ‘세계제국’을 의미한다(123).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반된 제국의 변화는 소위 몽골제국의 ‘분열’로 인식되었다. 곧 1259년 몽케 카안의 사후 벌어진 아릭 부케와 쿠빌라이의 내전, 쿠빌라이가 1272년 ‘원(元)’이라는 중국식 왕조명을 채택함으로써 소위 ‘4개의 칸국’으로 분립되었다는 것이다. 저자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밝혔듯이, 쿠빌라이가 채택한 ‘대원(大元)’이라는 국호는 중국적 왕조의 명칭이 아닌 대몽골제국(Yeke Monggol Ulus)의 한자식 표현이었다.¹⁾ 몽골제국은 1260년 이후 4개로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느슨한 울루스들의 연맹’이었고, 그것을 배경으로 소위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129).

제3장 <팍스몽골리카>에서 저자는 몽골인들에 의해 실현된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다. 엄청난 파괴와 살육을 수반한 정복전쟁이 결코 역사적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공전의 통합의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전 어떤 시대보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정보가 소통되었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마르코 폴로가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방법’이라고 칭송해 하지 않았던 역참제도라는 획기적인 시스템 때문이었다. 방대한 규모의 포괄적 운송체제로서 전문적으로 역참을 관리하는 ‘참호(站戶)’ 곧 ‘잠치(Jamchi)’뿐 아니라 문서 전달을 전담하는 ‘급체포(急遞鋪)’도 설치되었다. 몽골의 역참제는 유럽과 서아시아 각지에 영향을 주었다(156-7).

결과 몽골제국의 지배 영역에는 다종의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게 되었고, 그런 다양성과 차이는 결코 몽골 통치자들에 의해 획일화되지 않고 다만 ‘본속주의’를 존중하여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집단’을 통한

1) 김호동, 「몽골제국과 大元」, 『역사학보』 192집, 2006년.

통치가 이루어졌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뜻하는 색목인(色目人)은 몽골 제국의 ‘유연한 세계관’ 내지는 문화적 포용성을 보여준다(158). ‘다민족·다언어’의 제국 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수의 통역원(‘켈레메치 kelemechi’)과 번역원(‘비체치 bichechi’)이 존재했고, 전례 없는 육, 해상 교역의 증대와 더불어 최초로 지폐(鈔)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통용되고, 은본위 제도에 입각한 거대한 통상권이 형성되었다(174). 카르피나, 루브룩, 마르코 폴로, 랍반 사우마, 이븐 바투타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남긴 기록과 여행기가 지리적 지견을 확대시켜 새로운 세계관을 낳고, 유라시아 지역을 연결시킨 통합적이고 개방적인 환경 속에서 소위 ‘대여행의 시대’가 도래하였다(175). 저자는 몽골제국은 단순히 그런 통합적 환경을 조성한데 그친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문화요소를 창출해 내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했음을 역설한다(188).

13세기 정복자로서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대 제국을 건설하며 세계사의 전면에 등장한 몽골제국은 어떤 유산을 남겼을까. 제4장 <세계사의 탄생>에서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몽골제국 시대에 유라시아를 중심으로 제 민족들은 긴밀한 접촉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지평을 넓혔고, 그것은 ‘세계지도’와 ‘세계사’를 탄생시켰다. 특히, 일한국의 라시드 앳딘(Rashīd ad-Dīn)이 저술한 『집사(Jāmi at-tavārīkh)』는 몽골제국의 출현과 함께 단일의 세계사가 처음으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는 서술방식, 그 속에 포함된 시공간적 범위에서 ‘전대미문’의 저작이다(228). 이처럼 몽골시대가 가져다 준 ‘세계관의 확대’를 바탕으로 정화의 대원정이나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이 가능했지만 그 결과는 판이했다. ‘유럽과 비유럽의 엇갈린 운명’에 대해 저자는 그것이 “내륙과 해양을 어떻게 인식하느냐”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국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242)이라고 분석했다.

3.

여기서 평자는 ‘팍스 몽골리카’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으로 본서를 추가하고 싶다. 유라시아 각 지역을 유래 없이 통합시킨 몽골제국 시대가 없었다면 이 책도 결코 쓰여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책 머리에서 저자는 본서가 큰 주제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이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때문에 평자가 제한된 지면에서 세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비교적 큰 담론 속에서 특정한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으레 나타나기 마련인 경향의 문제로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아울러 마르코 포로를 위한 ‘변명’을 덧붙여 둔다.

장구한 중국의 화폐 경제사에서 한대 이래의 동전의 시대, 명대 이후의 은의 시대 사이에 위치한 원대는 유일하게 지폐(초)가 통용되었던 시기이다. 중앙에서 동전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법정 화폐로는 지폐인 초(鈔)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육·해상을 통한 국제교역의 증대가 기존의 화폐제도에 변화를 가져다주었고, 몽골인들이 중국을 정복한 뒤 교초를 유일한 유통수단으로 정하고 동전을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역사상 최초로 지폐에만 의존하는 화폐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173)고 했다. 물론 역사적 사실로서 쿠빌라이가 지폐를 선택한 원인 중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지폐가 비교적 유리한 측면도 있었다.²⁾ 하지만 당초 지폐는 쿠빌라이의 통치 영역인 중국의 대내용 통화로 발행된 것이었고, 대외용 화폐로 사용된 것은 여전히 은이었다. 쿠빌라이는 초기에 은, 동전, 지폐 3가지 종류의 화폐를 사용하려고 했지만 동과 은의 부족, 주조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 문제 등 불가피한 사정상 후일 지폐의 가치 보존과 유통량 제어를 위해 동전과의 병용을 전제로 임시적

2) 岩村忍, 「元時代に於ける紙幣のインフレーション—經濟史的研究」, 『東洋學報』 34, 1964, pp. 479-482.

으로 지폐를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에 대비해 지폐의 액면가는 동전의 단위인 관(貫)과 (文)으로 표시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위구르인들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는 은의 중량 단위(錠, 兩, 錢, 分)로 표시되었고, 당연한 결과겠지만 몽골제국 전체의 경제 교류에 편리했다.³⁾ 그러므로 지폐만을 사용하는 정책이 오로지 ‘국제교역의 증대’ 결과이거나 원거리 무역에서 결재상의 편의를 위해⁴⁾ 처음부터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동전과의 병용을 극력 반대한 한인 사대부의 주장⁵⁾ 등 다분히 우연적인 계기와 요소도 있었음을 언급해 둔다.

‘팍스 몽골리카’의 시대를 뒤로 하고 근대 해상팽창이 본격화 될 무렵 유럽과는 정반대로 중국의 해상에서의 후퇴는 세계사의 흐름을 변화시킨 중요한 계기로 파악된다.⁶⁾ 정화의 대원정 이후 명은 해양에서 후퇴하고 내륙으로 방향을 선회하였고, 반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래 유럽 상인은 국가권력의 강력한 후원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양으로 진출했다. 이처럼 몽골제국 밖에 남아 있던 나라들에 의해 이른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유럽과 비유럽의 ‘엇갈린 운명’은 역사에서의 많은 우연 중 하나일 수도 있지만, 학자들은 이데올로기·종교적 이유에서부터 정치, 경제적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다. 중국은 북방 유목민이 왕조의 사활에 절대적인 변수였고, 농업경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관료국가에서 보수적 유학자들의 환관 멸시, 반상업주의와 배외주의 영향 하에서 해상 교역은 조공무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 흥미로운 문제에 관해서, 저자는 몽골제국 시대에 남

3) 前田直典, 「元代の貨幣單位」, 『元代史の研究』, 1970, pp. 19-39.

4) 오카다 히데히로, 이진복 옮김, 『세계사의 탄생』, 황금가지, 2002, p. 214 및 재닛 아부-루고드, 박홍식, 이은정 옮김, 『유럽패권 이전-13세기 세계체제』, 까치, 2006, p. 363.

5) 胡祇遹, 『紫山大全集』 卷22 「寶鈔法」.

6) 周景철, 『대항해의 시대』, 서울대출판부, 2008, p. 21.

겨 준 세계관의 변화, 유럽의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더불어 “내륙과 해양에 대한 중국과 유럽의 관점의 차이(‘의지’)” 및 “몽골의 시대가 남긴 명암”을 지적했다. 결과 몽골의 직접 지배를 받은 적이 없던 유럽이 가장 큰 이득을 보게 된 것이다.⁷⁾

비록 저자가 ‘전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피상적인 세계관의 변화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만으로 정화와 콜럼버스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항해를 추동했다고 보기엔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인이 보여준 ‘폭력’⁸⁾을 생각할 때 그런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평가는 여기서 유럽인에게만 주어졌던 강렬한 ‘동기’ 하나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 동기를 부여한 것은 다름 아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다.

저자는 『동방견문록』의 ‘원래 제목’이 ‘세계에 관한 서술(*Divisament dou Monde*)’이고⁹⁾, 기존 이 책의 진위여부를 둘러싼 ‘회의론’이나 ‘비판론’은 책의 성격을 ‘여행기’로 파악하는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180). 그렇다면 모울(Moule)과 펠리오(Pelliot)의 영역본 『*The Description of the World*』(1938)는 원제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저자가 말하는 ‘원래 제목’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지금은 사라진 마르코 폴로가 루스티겔로를 시켜 구술해서 작성한 ‘원본’에 붙여진 제목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과연 마르코 폴로 자신이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오늘날 현존하는 사본만도 120여 종이 넘고, 번역과 역주서의 제목도 다양하다.¹⁰⁾ 이탈리아 사람들은 입만 열면 ‘백만’을 부르는 마르코 폴로의 별명을 따서 『백만(II Millione)』이라고 했고, 가장 많은 경우 ‘Travels of Marco Polo’로 명명된다. 이는 영어 ‘Travels’의 함의가 그만큼 광범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

7) 책 웨더포드, 정영목 역, 『칭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사계절, 2005, p. 333.

8) 『대항해의 시대』, p. 119.

9) 김호동 역주,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사계절, 2000, p. 24(이하 『동방견문록』).

10) 『동방견문록』, pp. 54-55.

면 ‘여행’이라고 해서 꼭 틀린 것은 아닐 것이고, 다만 ‘여행’은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使行紀, 巡禮紀, 留學紀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몽골제국이 이룩한 통합의 가장 매력적인 면모 중 하나가 그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 졌다는 사실이다. 대부분 종교적, 정치적, 상업적 사명들이 뒤섞여 있어 정확한 구분은 힘들지만 가장 근본적 목적에서 본다면, 1245-47년 몽골리아를 방문하여 구육의 즉위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프란시스코 교단의 수도사 카르피니의 『行程錄(Itinerarium)』과 1253년-54년 몽케를 만나고 귀국한 같은 교단의 루브룩이 쓴 『몽골인의 역사 Ystoria Mongalorum』는 사행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Rihla)』는 순례기에 넣을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한때 서양에서 성경 다음가는 베스트셀러였고 대칸의 나라 동방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과 상상을 끊임없이 불러 일으켰던 마르코 폴로의 저서는 어떤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책 속에 드러나는 다방면에 걸친 그의 관심과 광범위한 기술 내용으로 인해 ‘지리지’·‘박물지’·‘민족지’의 성격도 엿볼 수 있다.¹¹⁾ 그런데 협소한 지리적 범위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종교적·정탐 임무’를 띠고 몽골제국을 방문했던 카르피니의 보고서 내용도 기후와 지리를 포함해 몽골의 역사·종교·관습과 몽골인이 점령한 지역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마르코 폴로를 카르피니나 루브룩과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평자는 적어도 그가 과연 “자신이 돌아보거나 직접 가보지 못한 세계 여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을 목적으로”¹²⁾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전제가 대칸의 제국에서 폴로가 과연 어떤 신분이었나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그를 ‘오르톡(斡脫)상인’으로 보는 견해¹³⁾는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오르톡 상인은 카안이나 몽골귀족을 대신

11) 『동방견문록』, pp. 32-33.

12) 『동방견문록』, p. 25.

해 고리대를 하거나 장사를 대행하고 그 이익 중 일부를 자신이 갖는 관상(官商)을 가리킨다.¹⁴⁾ 『동방견문록』에 쿠빌라이가 사자를 세일란(錫蘭)에 보내 홍보석(紅寶石)을 구매하고자 했던 사실을 상세히 전하는데서¹⁵⁾ 마르코 폴로의 “사신의 임무”나 “대칸의 통치를 수행”했던 임무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듯하다. 물론 폴로가 오르토크 상인이든 아니든 통합을 공존시킨 몽골제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생각해 본다면, 17년간 대칸의 제국에 거주했던 기독교를 신봉하던 ‘색목인’이자, 특히 상업에 종사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면 그의 ‘중국 체재’를 의심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방견문록』에 대한 회의와 불신은 마르코 폴로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았다. 산을 움직인 구두장이의 기도나 천국과 같은 정원과 아름다운 여인으로 젊은이들을 유인해 자신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던지게 했다는 산상의 노인들과 같은 이야기는 동시대인은 물론 현대인도 믿기 어렵다. 이런 불신의 근거에는 1320년부터 1356년 까지 세계 각지를 누비고, 중세기 이래 가장 위대한 여행가로 불리며 인기를 누렸던 던 맨더빌(Sir John Mandeville)의 『여행기』가 19세기에 이르러 여러 전적에서 ‘이리저리 베낀 것’으로 철저히 판명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¹⁶⁾ 폴로 자신의 과장이나 허풍이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있음을 제외하고도, 더 중요한 점은 학자들이 마르코 폴로가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몽골제국에서의 그의 지위나 활약상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버느라고 너무나 바빠서’ 회고록을 쓸 시간이 없었던 상인들과 달리 후세에 영향을 준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폴로와 같은 인물은 몽골제국 시대에는 수많은 ‘색목인’ 중 하나에 불과했고, 특히

13) 蔡美彪, 「試論馬可波羅在中國」, 『中國社會科學』 1992-2期.

14) 『元典章』 권17 “斡脫戶, 見奉聖旨·諸王令旨, 隨路做賣買之人.”

15) 『동방견문록』, p. 441.

16) 성백용, 「맨드빌의 <여행기>와 동양」, 『동국사학』 49집, p. 109.

재무 방면에서 위구르인을 필두로 하는 무슬림이 활약하고 있던 시기 유럽에서 온 일개 상인 출신이 더 특별할 이유는 없었다. 결국 역사적 사실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양양(襄陽) 공격에서 사용된 투석기를 자신이 만들었다고 한 것도 ‘장사꾼’ 특유의 허풍이나 과장을 덧붙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도나 인물의 계서(階序)에서 착오는 있지만 제국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과 실상에 대한 그의 언급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면을 보여준다.¹⁷⁾

그렇다면 중국 전적(典籍)에서 그의 사적이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내재적 증거’의 부족으로 제시하거나¹⁸⁾ 만리장성, 차, 한자, 전족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는 것은 700년 전이라는 시대와 마르코 폴로의 관점과 관심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몰역사적이고 편협한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실상 서구 학자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만리장성은 명대 이후 수축(修築)된 것이고, 오히려 폴로는 책 속에서 ‘뱃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상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을 통한 바닷길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학식과 문화적 소양을 갖춘 루브룩이 ‘키타이’의 한자 서사(書寫) 방법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것에¹⁹⁾ 반해 ‘장사꾼’ 마르코 폴로에게 이런 것은 관심 밖의 대상이었고, 사실로서 몽골인과 색목인 중에도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였고 제국의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도 했다.²⁰⁾ 마르코 폴로는 전족이나 차보다 ‘(엄청난)수입’과 ‘수익’을 안겨다 주는 보석과 향료, 사탕, 진귀한 물건들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만약 이상과 같이 마르코 폴로의 저작이 근본적으로 혹은 ‘순수한’ 의도의 “[유럽을 제외한]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묘사”(180)를 목적

17) 『동방견문록』, p. 246 및 pp. 218-225.

18) 대표적으로 Wood, Frances, *Did Marco Polo go to China?*(London, 1995).

19) Dawson, Christopher ed. *The Mongol Mission*(Sheed & Ward, 1955), pp. 171-172.

20) 『元史』卷173 「崔斌傳」: “江淮行省事至重, 而省臣無一人通文墨者.”

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면, 정작 그가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동방견문록』에서 그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가장 위대하고’ · ‘가장 현명한’ 대칸에 예속된 지역으로 부(富)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이었고, 그 외의 것은 ‘특별히 언급할 만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제96장에서 폴로는 지폐의 제조과정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하고는 곧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 주겠다”라고 하며 지폐의 태환에 대해 설명하고,²¹⁾ 특정 지역의 관습을 언급할 때도 그 목적은 언젠가 이곳을 방문하게 될지도 모를 ‘여행자 상인’이나 ‘상인과 여행자들’ 또는 ‘나그네 상인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²²⁾ 같은 선상에서, 곧 마르코 폴로의 글은 당대인들이나 이후의 유럽인들에게 순수하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욕을 자극”한 것 이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정말로 경악할 정도의’ 엄청난 부의 소재지를 알려주는 글로 쓴 보물지도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 점에서 1375년 제작된 <카탈루니아 지도>는 그 부의 소재지 ‘동방’을 최초로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다. 몽골제국에 대한 환상과 기대가 지속되었던 유럽에서는 몽골제국이 사라지고 100여 년이 지난 뒤, 『동방견문록』을 열독하고 수 십군데 표기를 한 컬럼버스는 1492년 ‘황금’을 찾아 폴로가 상세히 알려준 ‘부의 지도’를 들고 항해에 나서게 되었다. 여기에서부터 정화의 대원정과는 차이가 있다.

요컨대, 평자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팍스 몽골리카’의 유산으로서 ‘대항해의 시대’의 도래였고, 그 선상에서 서평자의 임무를 빌어 『동방견문록』을 재음미해 보았다. 15세기 이후 유럽과 여전히 부유했던 비유럽의 엇갈린 운명의 원인에 대해 저자가 ‘의지’의 문제(242)를 제시했다면, 평자는 동방으로 부를 찾아 나서려는 유럽인의 강력한 물질적 ‘동

21) 『동방견문록』, pp. 272-273.

22) 『동방견문록』, pp. 309-311.

기'를 덧붙여 보았다. 물론 『동방견문록』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팍스 몽골리카'의 시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유목민의 군사력과 상인의 상업력의 결합으로 몽골제국이 탄생되고, 세계사의 통합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이제 이 통합으로 이룩한 '팍스 몽골리카'와 상인 마르코 폴로의 결합으로 생겨난 『동방견문록』이 '대항해의 시대'를 향한 깃발을 올리는데 강렬한 동기와 힘을 보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않을까.

이상, 서평자로서의 임무는 마르코 폴로의 말을 빌려 "이밖에는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으므로 이 정도로 그만 해 두고", 이제 남은 일은 저자가 넘겨준 '열쇠'로 그 동안 닫혀있던 몽골제국사의 곳곳을 열어 미지의 지식과 진실을 탐구하기 위해 행복한 '학문의 대항해'를 시작하는 것이리라.